



작은도서관, 일상적인 지역문화 공간으로 의미와 해석

책과 도서관 대표 박미숙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기획자 강상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0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101
II. 작은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탄생과 변화	103
2. 작은도서관의 시기 구분	107
III. 작은도서관의 특징과 몇 가지 관점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18
2. 작은도서관의 특징	120
IV.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1. 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	129
2.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사례	132
V. 결론	148
참고문헌	151

그림 목차

[그림 1] '시민적극유치 독서분위기 확산 재정수입 확대'
[그림 2] '공공도서관 열람실 퇴출 논란'
[그림 3] 2018 한국도서관연감 캡처본
[그림 4] 2015 경기도 도서관 총서 6 표지
[그림 5] 강동마을공동체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집 캡처본
[그림 6]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통계 자료 캡처본 1
[그림 7]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통계 자료 캡처본 2
[그림 8]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책읽어주는 의자'
[그림 9]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놀이터 도서관'
[그림 10]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악당개미' 활동
[그림 11]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활동
[그림 12] 서울에서 진행된 제주어르신그림책 원화전
[그림 13]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마을 이야기 책
[그림 14]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10주년 기념 마을 잔치 홍보물

표 목차

<표 1> 공공도서관에 포함되는 도서관
<표 2> 작은도서관의 시기구분
<표 3> 작은도서관 연도별 숫자 변화
<표 4> 작은도서관 연도별 유형 변화
<표 5>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변화
<표 6>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가자 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찾아 보고 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탄생과 변화,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탄생과 변화과정을 통해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일제에 의해 황국신민으로 키워내기 위한 학습공간으로 출발하여,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보제공 기관이자, 학습공간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여전히 많다. 이에 반해 작은도서관은 ‘개인학습’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생활권역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독서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이는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시작을 어디로 보는가 여러 의견이 있으나, 본 연구는 70년대 엽대섭 선생님의 마을 문고 운동에서 그 시작을 찾았다. 이후 엽대섭의 마을문고 운동은 새마을운동으로 흡수되면서 침체기를 맞이했고, 그 뒤 노동서원 등 사회변혁을 고민하던 그룹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과 민간 어린이도서관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 후 2000년대 초반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진흥팀’을 시작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시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 사항 조항이 생기면서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팽창되기에 이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작은도서관을 일상성, 지역성, 마을공동체성을 가진 일상의 지역문화공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공공도서관 역할과 다른 작은도서관만의 역할을 인식해보고, 작은도서관의 지역 문화공간으로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관련 선행연구에서 근거를 찾고, 경기도 고양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대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사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일상적인 지역문화 공간으로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렇게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은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다른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1) 공공도서관의 개념과 종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법(2016. 02. 03 일부 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 “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를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은 다음의 도서관을 포함한다.

〈표 1〉 공공도서관에 포함되는 도서관

형태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	작은도서관
목적에 따라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장애인도서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병원도서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병영도서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교도소도서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어린이도서관'

2) 연구의 범위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의미는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용어로 사용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상대 개념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역사 안에서 작은도서관이 파생되고 변화해온 측면보다는 작은도서관이 고유의 역사성을 가지고 변화해온 과정을 중심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설립주체에 따라 나뉘지는 ‘사립공공도서관’과 ‘공립공공도서관’의 의미도 따로 해석하지 않고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을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함에 있어 공립작은도서관보다는 사립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3) 연구 방법

(1) 관련법과 선행 연구 탐구

본 연구는 일상적인 지역문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변화 과정,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관련된 선행 논문, 단행본 등을 찾아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논문과 단행본을 찾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련 논문 및 발표 자료, 지역문화공간 관련 논문, 커뮤니티와 공동체 관련 논문을 찾아 분석하였으며, 관련 보고서들도 추가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사례 연구

사례 연구로는 경기도 고양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대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활동가 인터뷰를 토대로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고양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사례는 연구자의 다른 연구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작은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탄생과 변화

작은도서관의 탄생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탄생하고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공공도서관의 폐쇄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민간주도로 만들고 운영한 것이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탄생과 변화

서구열강들의 공공도서관 설립은 ‘근대화와 시민계층의 탄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어 이후 6.25전쟁, 미군정,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다른 나라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1906년 평양에 설립된 대동서관(大同書觀)으로 주문옥·곽용순·김홍윤이 설립한 사립공공도서관이다.¹⁾ 이 당시 도서관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은 대부분 개화기 지식인들이다. 새로운 학문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필요한 교재와 서적을 번역, 출판, 열람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대한도서관은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립도서관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개관을 앞두고 한일합방으로 인해 모두 총독부취조국에 몰수되고 말았다.

1920년 현대식 공공도서관으로 윤익선이 세우고 이듬해 이범승이 인수받아 운영한 경성도서관은 1926년, 일제의 경성부 산하로 관리·운영권이 양도되었다. 이 당시 경성도서관은 도서 대출과 함께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중심에 두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치는 거점으로 관립공공도서관 2개관, 공립공공도서관 26개관, 사립공공도서관 15개관, 도합 43개관이 설립되었다. 이후, 1·2공화국 시기 공공도서관을 사

1) 두산백과. 검색어 “공공도서관”, 2017. 5

회교육기관으로 인식한 정부는 도서관 행정을 문교부가 관장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국가정책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 명분 아래 도서관법을 제정·공포하고 제도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을 여전히 사회교육기관으로 이해하고 내무부 소속 공공도서관을 문교부로 이관했다. 5공화국 시기에는 문교부와 내무부는 물론 문공부에서도 도서관 행정을 다루도록 했다. 이때 공공도서관은 교육차원에서만 이해되어 문교부 소속 공공도서관만 증가하였다.²⁾

제 6공화국인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행정부서인 문화부가 탄생하여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하였고, 김영삼 정부 때는 문화체육부³⁾ 산하 ‘박물관과’와 통합됨으로써 업무가 축소 조정되었다.

국가가 공공도서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2006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분법하여 각각 독립법으로 제정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사항은 12조에 규정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미국이 1970년대 대통령 직속 ‘국가도서관정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미국 도서관의 발전을 꾀하였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광복 이후 처음으로 도서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했으며, 여러 부서로 나뉘져 있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산적인 도서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작은 정부’ 정책과 함께 1년 밖에 되지 않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도서관계의 저항으로 위원회는 명목상 유지되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축소되었다.

2)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역할의 문제점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역사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과거 사회교육기관 기능으로 만들어졌던 ‘공부방’ 개념의 ‘열람실’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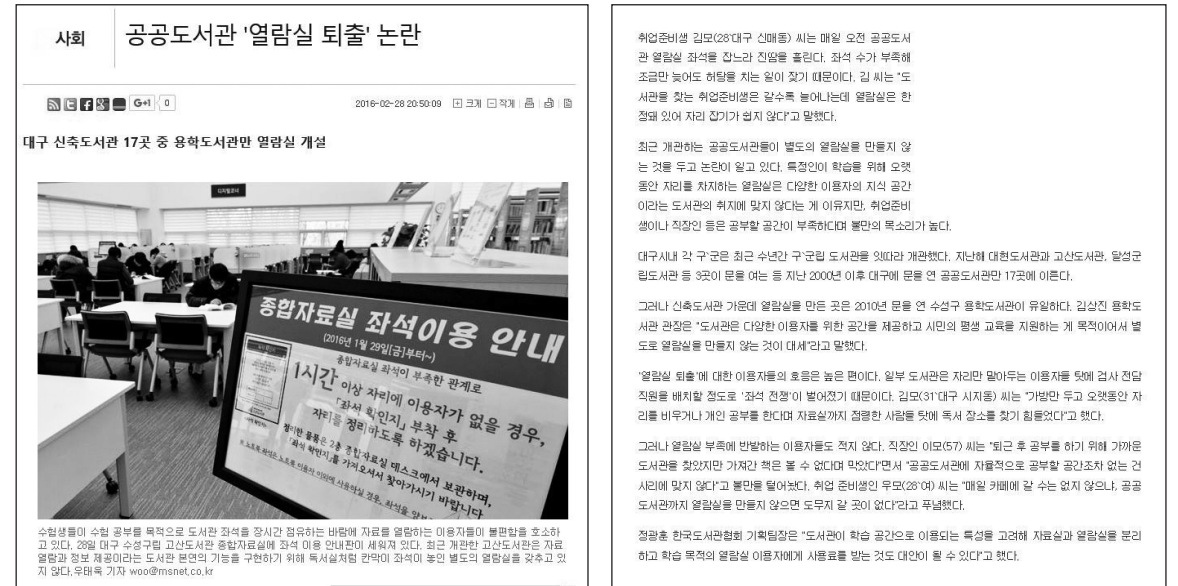
2) 박동철, 2016,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고찰》

3) 1993년 3월 6일 김영삼 정권의 중앙행정부서에 대한 정부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고 있으며, 도서관 행정체계도 이원화 되어 있다.



[그림 1] ‘시민 적극유치 독서분위기 확산 재정수입 확대’ 한겨레 1996. 3. 11.



[그림 2] ‘공공도서관 열람실 퇴출 논란’ 매일신문 2016. 2. 28.

두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996년도에 나온 첫 번째 기사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도서관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식당식 서가를 배치하고, 아이들을 위한 코너에는 ‘떠들어도 됨’이라는 안내문을 써 붙이는 등 정숙한 도서관이라는 전통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은 ‘시험공부방’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년도 기사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열람실 퇴출’ 논란을 다루고 있는데 최근 신설되는 공공도서관에 특정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는 칸막이식 공부방 형태 열람실이 없어지는 현실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고 차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미국은 20년 전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시도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칸막이식 공부방 형태 열람실 존재유무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부방 형태 열람실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일제시대에 황국신민화 교육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었던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공공도서관이 오늘날까지 입시 위주 교육, 취업문제 등으로 개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곳을 제공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대 도서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왔던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부방 형식의 열람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경직된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일제 강점기에 당시 지배자였던 일본인과 일부 지배층을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고, 이것은 이후 독재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국가 권력이 정보와 지식을 검열하고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서관을 자리매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민중이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 확산 장소이자 시험과 입시를 위한 공부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⁴⁾

4) 이용재 외. 2007.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 작은도서관 시기 구분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탄생과 변화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민간에서 시작된 운동이라는 점에 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역사는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역사를 작은도서관 형성기, 자발적 확산기, 활성화기, 재정립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작은도서관⁵⁾의 시기구분⁶⁾

연 도	단 계	성 격	주 요 내 용
일제시대 -1950	1단계	관주도 시기	대한도서관 설립 -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흡수 일본으로부터 도서관 인수 국립조선도서관학교 설립 조선도서관협회(훗날 한국도서관협회)결성
1960-1970	2단계	작은도서관 형성기	마을문고 운동
1980-1990	3단계	작은도서관 자발적 확산기	양서협동조합의 지식 공동체운동 부산의 ‘노동서원’ 서울 ‘난곡주민도서관’ 등의 민간도서관 등장 어린이도서관 운동 등장
2000-2010	4단계	작은도서관 활성화기	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설립운동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도서관법 개정 추진 작은도서관 운동 심화
2010-현재	5단계	작은도서관의 재정립기	작은도서관 진흥법 재정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재정 공동주택(아파트)작은도서관의 양적확대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 확산

5) 원저자는 ‘작은도서관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본 필자는 전체 글에 맥락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으로 표기했다. 참고하기 바람.

6) 김소희. 2007. 《작은도서관 운동의 마을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대학원 NGO학과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본 필자가 적은 작은도서관 역사 역시 4단계를 제외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연도와 단계를 기준으로 했다. 또한, 이 표에 쓰인 5단계는 인용한 논문에는 없는 내용으로 본 필자의 구분임을 밝혀둔다.

1) 작은도서관 형성기 : 1960-1970

작은도서관 역사는 1961년 업대섭(7)으로부터 출발한 ‘마을문고’ 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업대섭은 전쟁 이후 탄환 상자 50개 순회문고를 만들었다. 농어촌계몽 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마을문고’ 운동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책으로 독학을 했던 업대섭의 자기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내 고장에 책보내기 운동, 도시변두리 지역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이동문고, 고속터미널 문고 등 그 당시 공공도서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마을문고’는 1974년에는 3만 개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81년 새마을운동 조직에 흡수되어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의 관주도형 조직이 되었다.⁸⁾

업대섭의 ‘마을문고’ 운동 정신은 이후 일상문화공간으로 주목받는 작은도서관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농어촌 지역에 책읽기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이후 활발하게 벌어진 작은도서관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대섭의 마을문고를 흡수해 관주도로 운영된 ‘새마을문고’는 동사무소(현재 주민센터) 일부 소규모 공간에 전시행정 차원에서 서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고 도서관활동가 중심이 아닌 자원활동가에 의한 운영으로 이후 민간의 자발성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도서관과 많은 차별점을 갖는다.

남영준(2006년)은 “작은도서관이 문화운동과 복지와 같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적 측면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점은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을 구별할 기준이 될 수 있다.”⁹⁾는 말로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의 차별점을 강조하였다.

2) 작은도서관 자발적 확산기 : 1980-1990¹⁰⁾

업대섭의 마을문고 운동이 관주도의 새마을문고로 전환되면서 민간 자발성에 바탕을 둔 작은

도서관은 사라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980년을 전후하여 양서협동조합운동, 노동서원 운동, 주민도서실과 작은어린이도서관 만들기가 시작되면서 업대섭의 마을문고와 다른 방식의 작은도서관들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 부산에서 시작된 양서협동조합운동은 새로운 형식의 독서운동이자 공동체운동이었다. 조합의 근본이념을 ‘지식과 이익을 나누고 공유한다’고 두고 초기 진보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시대적 격변기를 맞아 다양한 형태로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했지만, 많은 곳들이 민주항쟁과 더불어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하지만 부산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서울에도 확산되었으며 서울에 만들어진 서울양서협동조합 내 소모임인 ‘어린이책 연구모임’은 이후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전신이 되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이후 작은어린이도서관들이 생기고 활동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양서협동조합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해체되었으나 1980년대 노동서원, 1990년대 창원의 마을도서관운동, 사립문고 운동과 어린이도서관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80년 대 생긴 ‘도서원’들은 양서협동조합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하던 그룹들이 설립한 지식공동체로 출발하였다. 사회과학서적 및 노동 관련 서적이 주로 비치되었으며 노동문제 상담 및 독서회, 역사기행 같은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는 낮은 계층과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공공도서관 역할을 한 것으로 이후, 작은도서관들이 정보나 독서 소외계층들과 함께하려는 운동성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운동을 하던 그룹들이 만든 노동서원과 또 다르게 서울과 경남 등에서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도서실’은 작은도서관의 ‘지역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례이다.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1988년 서울지역에서 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푸른소나무 도서대여실’은 5인으로 구성된 자치조직 ‘새날회’를 주축으로 운영되었으며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신림동에 설립된 ‘난곡주민도서실(현재 난곡 새숲작은도서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서관학(현재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이다.

7) 업대섭(1921. 1. 21 ~ 2009. 2.)은 한국도서관협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도서관 운동가로 농어촌마을 마을문고 설치 운동과 공공도서관 운동을 이끌었다. 1980년에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호는 간송(澗松). 위키백과.

8) 이용남. 2013. 《도서관 운동가 업대섭 평전 '이런 사람 있었네'》 한국도서관협회.

9) 남영준. 2006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10) 김소희. 2013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청어람미디어에 쓰인 내용을 본 필자의 의도에 맞게 재정리하고 일부는 필자의 의견을 반영 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남양서보급회가 만든 마산 ‘책사랑’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88년 초기부터 대규모 자본과 공간으로 시작된 책사랑은 이동도서관까지 운영하는 것은 물론, 마을문고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도 했다. 1989년에 설립된 대구 ‘새벗도서관’은 (1999년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등록)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직접 설립에 참가하고, 설립 이후에는 도서관 운영의 후원자가 되었던 도서관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을 통해 성장한 도서관으로 손꼽힌다.

지역에서 노동자와 빈민 같은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흐름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민생활권 내에서 도서관서비스에 충실한 작은도서관들이 확산되기 시작되었는데 이때 작은도서관의 법적인 지위였던 ‘문고’로 등록하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 당시 가장 많은 확산을 가져온 것은 바로 ‘어린이도서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은 1980년 채규철 선생님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국에서 작은어린이도서관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연합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합 모임은 작은도서관 건립운동을 활발히 펼쳐 전국에서 ‘마을독서문화 공동체’ ‘어린이책문화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에 생긴 어린이도서관들은 그 당시 공공도서관이 가진 폐쇄성과 경직성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자유롭게 도서관 이용을 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에 의해 활발하게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며, 정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십시일반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지고 운영되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마을 곳곳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질 수 없는 공간적 환경과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았다. 하지만, ‘도서관’으로 지위를 갖기 어려웠는데 이는 ‘자격증 있는 사서’가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도서관계의 흐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노동서원을 시작으로, 주민독서실, 어린이도서관의 설립과 확산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정보소외 계층에게도 자유롭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평등성’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성과 공동체성’인데 이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히 정보 제공을 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규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확산해 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 작은도서관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지만,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발성’을

11) 도서관법 2조 4항에 있는 ‘어린이도서관’과는 다른 형태로 마을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이때 생긴 흐름은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명칭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나 빈민, 여성, 어린이 등이 일상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일상 공간’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 시민들 스스로 읽고 배우는 독서문화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독서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3) 작은도서관 활성화기 : 2000-2010

1990년대 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어린이도서관은 2000년대 초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1994년 서울의 함께크는우리를 기점으로 1997년 파랑새어린이도서관, 1998년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1998년 인천 늘푸른어린이도서관, 1999년 경기도 웃는책어린이도서관과 청주의 초롱이네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초반 서울의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와 대조동꿈나무, 꿈틀어린이도서관을 비롯 경기도 숲속작은도서관, 책놀이터 어린이도서관(이후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됨) 강원도 철암어린이도서관(현재 사립공공도서관 철암도서관으로 운영형태 변경 됨) 호남에 아이숲과 책마루, 삼성동, 영남에 더불어숲과 들꽃이야기 등 다양한 어린이도서관이 생겨났다. 법적인 용어로는 ‘사립문고’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들은 ‘어린이도서관’ 또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과거 문고와는 다른 의미로 운영을 해나갔다.

이와 같은 민간차원에서 어린이도서관(작은도서관)의 확산은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기적의도서관’ 운동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MBC가 함께 벌인 이 캠페인은 2003년 순천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제천, 진해, 서귀포, 제주, 청주, 울산, 금산, 부평, 정읍, 김해에 잇따라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캠페인이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 설립 중에 있다.

이용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작은도서관이 최근 들어 사회적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이유가 2003년 우리 사회를 뒤흔든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 때문”¹²⁾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이 시기 작은도서관의 인식 개선과 확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도 그럴 것이 기적의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은 기존 민간어린이도서관(작은도서관) 모델을 차용

12) 이진우, 2006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기적의도서관 설립을 고민하면서 기존 민간어린이도서관 운영자들과 함께 공간구성 및 운영 방식을 논의하였으며, 기적의도서관 1호인 순천 기적의도서관 경우 그 당시 제주에서 민간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던 허순영 관장이 임명되었고, 민간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던 관장들이 지역의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와 함께 민간어린이도서관(작은도서관)이 확산된 것과 함께 경기도 부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공립작은도서관’ 건립 운동도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천은 1990년대 말부터 도시 성격을 ‘문화도시’로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을 시민단체와 시가 함께 “살기 좋은 부천 만들기” 운동을 벌여내기에 이른다. 이때 만들어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는 부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를 걸어서 가는 ‘작은도서관’으로 설정하고 마을마다 공립작은도서관을 만들기에 이른다.

기존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어린이도서관과 다르게 지자체가 공공 공간에 공립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민간이 이를 위탁 운영하는 형식을 채택했다. 이는 이미 90년대 말 창원에서 시도한 방식이기도 하나, 창원의 사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급 사서’를 두는 방식으로 공립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 이후 2004년 순천에서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펼쳐졌으나 공립작은도서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을 꾀한 것을 생각하면, 부천의 공립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이 그 당시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가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확산되는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006년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문고’라는 명칭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 정부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활성화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정책과제로 정하고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중앙도서관내에 신설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시행하였고,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작은도서관 관련 중장기 정책수립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들은 핵심을 찾지 못하였고, 이는 박근혜정부에도 이어져 2006년에 시작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만 집중되어 버렸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작은도서관’은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와 공립작은도서관 설립 운동을 통해 ‘도서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숫자도 적은 공공도서관이 개인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열람실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숙’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면,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훨씬 자유롭게 독서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물론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킨 점을 인정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다른 나라 도서관의 탄생과 변화 과정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민간주도로 시작된 작은도서관은 양과 질에서 부족했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공공도서관의 경직성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공부방이 없는 도서관 운영, 주민밀착형 운영, 시민들의 자발적인 독서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용남(2016)이 ‘작은도서관 전개 과정과 의미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발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역사에 작은도서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연 ‘작은도서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도출해냈다는데 있다.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없다. ‘작은도서관’이란 말은 단지 ‘크기가 작다’라는 형용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운동’과 ‘정신’에 의미를 부여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동’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자조운동인만큼 ‘크다’ ‘작다’라는 규모나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고 빌려가는 딱딱한 공간이 아닌, 문화인으로서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놀이로 느껴지는 즐거운 독서의 놀이터인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성인을 위한 휴식공간이면서도 지역주민이 모여 소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공간이다.

다양한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수혜자이면서 자원활동과 기부·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의 공동체 문화·자치문화 등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주민의 참여적 관심을 도서관 문화 전반의 성장으로

13) 2008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국립중앙도서관

유인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¹³⁾

2008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에는 ‘작은도서관’을 단순히 크기가 작다는 의미로 말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운동으로 정의해 ‘작은도서관’을 고유명사로 설정했으며 지역공동체 공간이자,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해석으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작은도서관 재정립기 : 2010년-현재

숫자로만 보면 이 시기 작은도서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가된 숫자로만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지점에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으나, 질적인 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 양상을 보면, 작은도서관을 재정립할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변화

작은도서관은 2007년 시행된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을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실인 문고’로 명시하였다가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처음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법률적 개념으로 정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법」제2조(정의) 제4항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였고, 여기서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국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였다.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통해 제시하였는데,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이며, 자료는 1,000권 이상으로 명시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국정주요 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도

서관법」과 별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되었는데, 2012년 2월 17일 제정 동년 8월 18일 시행된 「작은도서관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진흥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는 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작은도서관 조성비,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도서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사업비, 주민 대상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두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동주택(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은도서관이 확산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관련 조항이 언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자치법규시스템(ELIS)을 통해 확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4곳, 기초지방자치단체 141곳 총 155곳에서 제정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인 곳도 20여 곳이 넘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요 특징은 조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지원’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주된 내용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적 제도적 변화는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었으며, 특히 공동

주택(이하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증가에 큰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적 제도만으로 작은도서관의 가치와 운영 방식을 표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시작되어 확산된 운동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작은도서관 연도별 숫자 변화

연 도	사 립	공 립	합
2010년	2,680	669	3,349
2011년	2,655	809	3,464
2012년	3,057	884	3,951
2013년	3,798	888	4,686
2014년	3,932	1,302	5,234
2015년	4,231	1,364	5,595
2016년	4,511	1,403	5,914
2017년	4,651	1,407	6,058
2018년	4,897	1,433	6,330

(2)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변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작은도서관 숫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 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은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한 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이 꾸준히 증가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표 4〉 작은도서관 연도별 유형 변화

연도	공 립			사 립					
	직영	위탁	무응답	개인 또는 민간단체	새마을 문고	종교 시설	법인	아파트	무응답
2010년	482	187		857	531	624	113	555	
2011년	542	257	10	728	502	598	107	628	
2012년	609	285		887	508	726	150	747	
2013년	652	208	28	1,068	625	835	234	945	91
2014년	931	370	1	1,178	416	934	231	1,173	0
2015년	951	412	1	1,219	421	1,023	240	1,328	
2016년	971	432		1,295	382	1,114	270	14,50	
2017년	977	430		1,298	368	1,155	270	1,560	
2018년	982	451		1,342	368	1,196	264	1,727	

(3) 작은도서관의 유형 및 설립주체의 변화

작은도서관의 증가와 운영 주체의 변화는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급속한 증가와 맞물려 있다. 다른 유형보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비약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과 2018년을 견주어 보면 다른 유형의 작은도서관의 증가 추세보다 무려 3배가 넘게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작은도서관 현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개소 수의 확대는 작은도서관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발전, 즉 활성화를 위한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돌아보게 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이라는 정보 접근성에 용이한 도서관이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설치 기준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주택법에 공동주택 500세대 의무설치 기준을 통해 주민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작은도서관의 수적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 기준만 있을 뿐 운영은 운영 주체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율적 활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

14) 한국도서관협회, 2018 <<2018한국도서관연감>>

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¹⁴⁾

2018년 말에 한국도서관협회가 펴낸 ‘2018 한국도서관연감’에 기술된 것처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작은도서관은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에는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 이는 앞으로 정책방향에서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도록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Ⅲ. 작은도서관의 특징과 몇 가지 관점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010년 이후 법률적 제도적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개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이 생활 속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고,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점이 분분하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조성’에만 치우쳐 온 정부와 이를 지켜보기만 한 도서관계의 흐름은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사립작은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공공도서관’와 ‘작은도서관’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지만, 작은도서관은 전체 공공도서관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도서관종합발전 계획에도 공공도서관 개수를 1,042개관으로 표기하고 있고¹⁵⁾, 장서와 인력 통계 어디에도 작은도서관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해마다 꾸준히 발간되는 도서관연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

1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나. 전국 도서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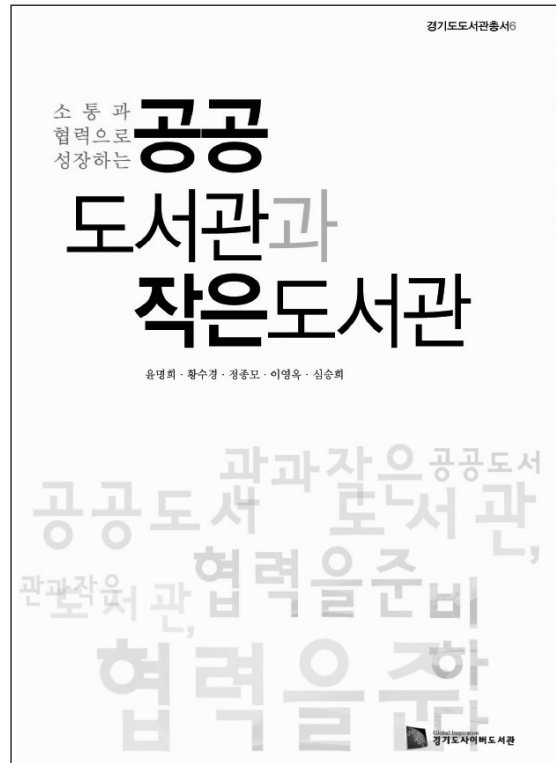
표 1-3 전국 도서관 수 (2017.12.31. 기준/단위: 개관)

지역	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서울	2,777	4	160	962	88	1,299	261	3
부산	1,096	-	40	378	26	622	28	2
대구	726	-	36	207	17	440	24	2
인천	839	-	48	247	12	516	15	1
광주	759	-	23	401	18	306	10	1
대전	609	-	24	216	20	300	48	1
울산	417	-	18	145	6	238	9	1
세종	149	1	5	42	5	83	13	-
경기	4,218	-	250	1,438	82	2,349	92	7
강원	903	-	56	183	24	624	12	4
충북	777	-	45	221	20	467	21	3
충남	1,097	-	59	285	29	711	7	6
전북	1,119	-	58	274	21	751	12	3
전남	1,206	-	67	260	18	848	9	4
경북	1,302	-	65	246	39	924	19	9

[그림 3] 2018 한국도서관연감 38쪽 2. 일반현황. 나. 전국도서관 수 캡처본

에 나온 바와 같이 전국도서관 수에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따로 분류해 놓았다.

이렇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는 현상은 많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5년에 발간된 경기도 도서관 총서 ‘소통으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제목에서부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서로 협력해야 할 주체로 설정하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도서관이지만, 협력해서 지역사회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에도



[그림 4] 2015 경기도도서관총서6.
〈소통으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표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법률적으로 공공도서관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현상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계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작은도서관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일반적인 의미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의미로 바라봐 왔고, 그런 까닭으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2. 작은도서관의 특징

해외 작은도서관은 미국과 일본, 브라질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공 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된다.¹⁶⁾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고¹⁷⁾와 같은 시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시스템 안에서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로서 분관 또는 소규모의 조직과 시설로 운영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역사는 다른 나라의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역사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 해외 경우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넣고 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공공서비스의 분야로 해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 영역의 자발적 운영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이용남(2016)도 ‘작은도서관 전개 과정과 의미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발표에서 다른 나라 도서관의 탄생과 변화 과정과는 다르게 진행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역사를 짚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민간주도로 시작된 작은도서관은 양과 질에서 부족했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전제한 뒤,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공공도서관의 경직성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공부방이 없는 도서관 운영, 주민밀착형 운영, 시민들의 자발적인 독서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서도 ‘민간주도’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주도’로 시작되었고 ‘민간주도’로 운영된다는 점이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이 가진 고유성이며,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이 가진 역사적 의미 역시 그러한 민간주도성을 중심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했던 민간운영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 왔는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 공공도서관과 다른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특징

16) 남영준, 2006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17) 여기서 문고는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역사적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의 역사적 변화, 운영형태, 공공도서관과의 차별성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책문화운동, 여성문화운동, 어린이문화운동, 교육문화운동, 지역 또는 마을 운동, 공동체 운동 등 민간이 주도해서 진행된 다양한 문화운동의 의미를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 물론, 현재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을 모두 이 틀 안에서 보기엔 무리가 따르지만, 앞서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작은도서관은 민간주도 중심 공간이다. 민간주도 중심 공간이라는 점은 시민의 '자발성'을 담보로 한다. 공립작은도서관이 확산되고 공공도서관과 협력관계가 두터워지기는 했지만, 작은도서관이 '민간의 자발적 주도 공간'이라는 점에는 큰 변화가

〈표 5〉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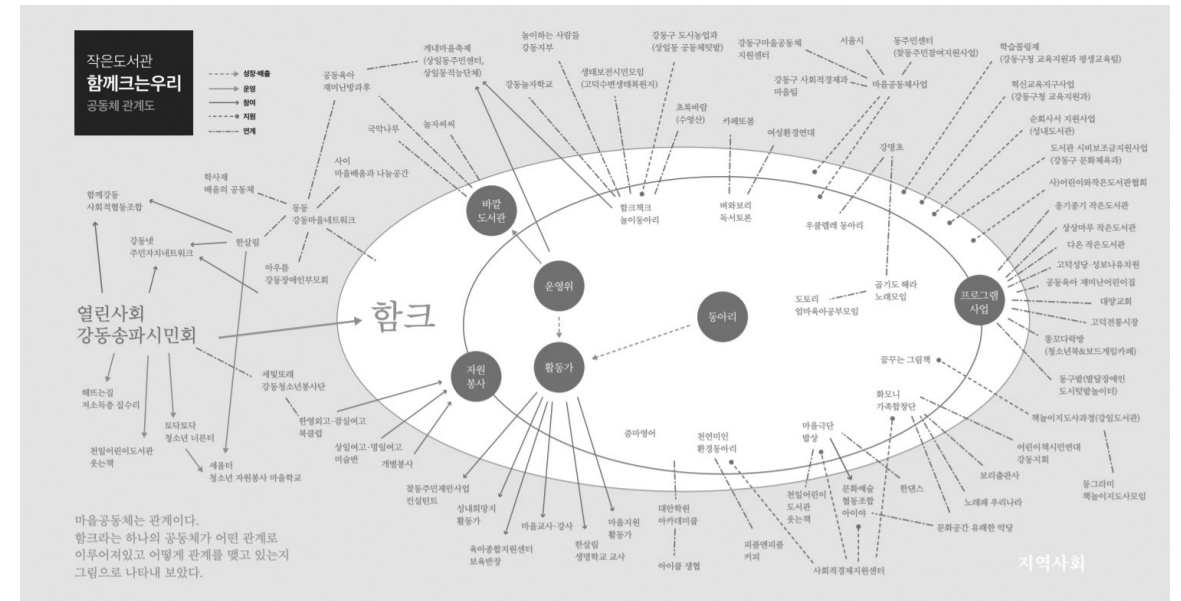
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	
	관수	%	관수	%	관수	%
공립	1,403	23.7	1,407	23.2	1,433	22.6
사립	4,511	76.3	4,651	76.8	4,897	77.4
전체	5,914	100.0	6,058	100.0	6,330	100.0

없다.

〈표 5〉에 나타난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립작은도서관의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작은도서관이 민간주도 중심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다만, 과거 '사회 운동적 개념'이 많았던 민간주도 작은도서관에서 '일상의 변화를 중심 개념으로 한' 작은도서관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변화된 사회 환경과 작은도서관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성이 강하다.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행정적 운동적 의미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작은도서관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작은도서관



[그림 5] 2017 강동마을공동체센터 발행, 마을공동체활성화 사례집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를 찾아서' 가운데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와 지역사회 관계도 맵핑

의 이러한 성격은 과거에 비해 현재에 이르러 더욱 그 의미를 더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는 지역에서 작은도서관 하나가 지역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마을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은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가는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작은도서관을 주목하고 '책공간'으로의 작은도서관보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석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마을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경기도 역시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일상으로 모이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이 가진 최대 장점이 마을공동체와 잘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하겠다.

세 번째 작은도서관은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의미가 크다. 작은도서관의 역사에서 살펴 본 것처럼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확산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은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림 6] 2019. 10. 21.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통계 자료 캡처본 1.



[그림 7] 2019. 10. 21.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통계 자료 캡처본 2.

[그림 6]과 [그림 7]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 명칭 가운데 3% 정도가 명칭에 ‘작은도서관’ 보다는 ‘어린이도서관’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설립시기가 오래된 작은도서관이 많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소속 도서관 같은 경우 소속 도서관 가운데 25%가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¹⁸⁾ 전국 작은도서관 통계에서 도중에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공립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주로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많은 수의 작은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하지만, 명칭에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국의 많은 작은도서관이 ‘어린이문화’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어린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작은도서관들이 과거 민간주도 활동가들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면, 현재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문제제기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가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네 번째 작은도서관은 민주시민의 교육장이다. 작은도서관의 시작이 농촌계몽운동, 노동서원운동, 빈민운동,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것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맞닿는 것이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개인이 정보를 취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여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삶의 질문을 던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작은도서관은 독서공동체의 장이다. 도서관이 담고 있는 중요한 담론이기도 하다. 작은도서관이 가진 지역 커뮤니티성, 공동체성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공동체 장으로 활성화 되기에 좋은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수의 독서동아리들이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독서동아리 지원센터에 등록된 70개 독서동아리 가운데 47개(전체 67%)가 작은도서관 소속 동아리이거나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한 관련프로그램의 결과로 만들어진 독서동아리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많은 활동들이 ‘독서프

18)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소속 도서관 자료 자체 분석

1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작은도서관 수는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에 어린이작은도서관의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통계에서도 어린이작은도서관을 따로 분리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표 6〉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가자 수²⁰⁾

구 분	항 목	프로그램 수	실시횟수	참가자수
독서프로그램	전체	평균	평균	평균
		2.5	25.6	252.3
	공립	5.2	40.8	476.6
	사립	1.8	21.2	286.6

로그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한다.

3)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

작은도서관 역사적 의미의 핵심은 '민간의 자발성'이다. 이러한 바탕 아래 작은도서관은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를 더해온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역사적 의미는 다시 어떤 운영자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생활공간과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 마을주민들이 책을 매개로 꿈꾸고, 관계하고, 공동체를 구성해나가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이다. 시험 공부하는 공간, 신분상승을 위한 공간으로 특정의 목적을 가진 대상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노인, 어린이, 주부, 장애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도서관이다. '작게 낮게 느끼게'를 말하는 대안교육의 실험장이며 문화를 누리고 창작하는 공간이다. 독서진흥과 공동체성, 생태, 다양성 등을 학습하는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체를 이루는 만큼 그 안의 사람이 중요한 곳이다. 지역사회를 알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다. 작은도서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재생산해내는 곳이다.²¹⁾

20)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2019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1) 김소희 외 5인, 2015.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청어람미디어.

첫 번째 관점은 작은도서관을 '커뮤니티성을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보는 경우이다. 작은도서관이 가진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가장 중심에 둔 관점이라 하겠다. 다른 지역 작은도서관이 잘 활동하고 있더라도,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이 용이한 작은도서관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인다. 모인 동네 사람들이 책도 읽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우리 동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고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더욱이 다른 마을공동체 공간에 비해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주는 안정감이 크다는 점도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가능성을 크게 하는 이유가 된다.

시대 속에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작은도서관을 일군 초기 활동가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좋은 책을 전해주고자 노력해왔는지 이야기 하는 과정은 작은도서관이 단지 공공도서관의 축소판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다.

작은도서관은 책이 사람들 손으로 전달되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곳이다. 책이 유기체처럼 꿈틀거리고 꿈틀거리는 공간이다.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곳,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 스스로 읽고 배움을 실천하는 곳, 지역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담는 그릇 같은 곳. 바로 이곳이 작은도서관이다.²²⁾

두 번째 관점은 작은도서관을 '독서문화 공동체'로 보는 경우이다. 얼핏 생각하기엔 마을공동체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다르다. '공동체'보다는 '독서문화'가 앞서기 때문이다. 독서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작은도서관은 우선 좋은 책을 고르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을 고르고 큐레이션 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책을 읽고 공통된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책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에 주력한다. 이 경우 '공동체'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같이 모여 책을 읽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된다. 작은도서관이 일반적인 의미의 '도서관'으로

22) 박소희, 2019.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저널

가지는 역할을 가장 크게 보고 운영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작은도서관을 시작한 계기는 어린이 책, 어린이문학에 대한 관심이었다. 어린이 책을 공부하는 모임들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주위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싶다는 요구를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로 모아졌다. 개인적 관심에만 그치지 않고 공유공간을 가치를 품은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졌다.

2000년대 초반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은 학습을 위한 독서실 기능이였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볼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공공도서관 문화로 만족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주권 운동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펼쳐나갔다. 단순한 책읽기와 학습의 공간이 아닌 시민이 성장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인식하고 만들어 갔다.²³⁾

세 번째 관점은 올바른 어린이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보는 관점이다. 어린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섞어서 해석한 것은 이 두 가지 관점이 '학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어린이 문학을 함께 읽고 어린이에게 권하는 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평생학습'의 영역과 맞닿아 있다. 또한, 인문학 강좌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 마을의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려는 과정, '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운영 등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교육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해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 것은 중하고 어떤 것은 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개념이 중요한 가 아닌가, 어떤 개념이 앞서는 가 뒤서는 가의 문제가 아닌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관심사 차이,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느냐 차이일 뿐이다.

23) 김자영 외 3인. 2017.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일부 발췌.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IV.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

1. 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

한 쌍의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체계가 다르다. 그래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문화가 문화를 만나 섞이는 일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같은 방식으로 직장에 신입 사원이 입사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일이라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 '한 사람'은 그 자체로 문화의 총체라는 말이 된다.

서양에서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colore)에서 유래했다. 즉,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 자연 사물에는 문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인위적인 사물이나 현상이라면 어떤 것이든 문화라는 말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야생화 문화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만 원에 문화라는 말은 성립한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라 할 수 있고, 인류가 유인원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진화하면서부터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며, 이는 인간이 속한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 문화를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는 인류학의 관점이 이런 문화의 본래 의미를 가장 폭넓게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자연을 인류가 상상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라 정한다면 문화와 자연에 대해 다른 접근도 가능하다. 이 경우 문화를 사람과 공간의 인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맺기로 본다. 사람, 공간, 시간, 그리고 사람의 의도성이 더해져 문화는 창조된다. 문화는 사람에 의해 지극히 의도되고 축적된 것이고 사람과 공간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 맺기의 결과다.

에드워드 렐프(1976)는 공간은 단지 자아중심적인 장소들의 연속일지도 모른다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공간을 '실존(생활)공간'이라 불렀다.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9771>

문화라는 총체적 생활양식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새로움이 반복적으로 쌓여가며 이는 일상의 색채를 띠고 드러난다. 작은도서관의 공동체 공간, 책문화 공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공간적 관점은, 그 강조 지점을 언제 어디에 더 기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실존(생활)공간이다. 나아가 시간에 의한 유기적인 조직화 과정을 통해 일상성을 부여받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은 일상 문화공간이 된다.

1) 작은도서관 문화기획

기획은 목표를 조율하는 일이다. 계획은 기획의 하위 개념으로 기획의 완결을 위해 일정을 짜는 일이다. ‘문화’와 ‘기획’이 만나면 또 하나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결국 ‘문화기획’은 기획자의 깊은 의도성과 조정 능력이 섞인 융합 과정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를 기획한다’는 말은 의도성에 의도성을 더 하는 일이다. 그러니 자칫하면 과잉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기도 한다. 문화기획이 특정 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예술, 사회, 도시, 교육, 환경, 정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건강한 생태계가 요구된다. 이는 건강한 삶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문화기획은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기능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과 ‘문화기획’은 어색한 연결 고리 같아 보였다. 도서관은 교육 목적의 지식 정보 제공 공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듯 보였고, 문화기획 역시 예술 및 장르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도서관은 교육과 계몽의 공간을 넘어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 ‘책’을 보유하고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술 공간의 기능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펼쳐진다.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들 사이에 독특한 일상 문화가 만들어지는 유기적 공간이 되어갔다. 작은도서관은 이와 같은 문화적 변화를 앞서서 추동해왔고 작은도서관의 활동은 공공도서관에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책이 만나 활동을 통해 거듭나기를 반복한다. 문화가 문화를 만나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되는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이 활동이다. 그리고 활동의 기록은 프로그램으로 목록화 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서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활동을 기획하는 일로 접근해야 옳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상 활동, 예를 들면 책을 읽어주는 일이나 책에 나오는 음악을 듣는 일, 책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일, 작은도서관에서 만남으로 만들어진 여러 모임의 활동이 해당된다.

과거 문화기획이 콘텐츠와 장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탈장르, 융복합 그리고 협업의 가치가 확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간 개념도 공연장, 미술관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간 간 네트워크 또는 지역을 넘나들기도 한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이 합쳐진 글로컬(Glocal) 개념이 언급하고 있듯 지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삶의 터전만을 거점 삼아 활동하던 시기도 지났다. 오히려 지역 간 연합 및 국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모든 분야에서 문화적 접근과 재해석을 토대로 한다.

문화기획은 콘텐츠와 장르 그리고 세상의 재해석을 통해 시선의 배열을 바꿔내고 사람의 삶에 깊은 우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문화기획이 궁극적으로 다뤄야 하는 건 콘텐츠와 장르를 넘어선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일이다.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부터, 늘 곁에 있어 소중한 줄 몰랐던 누군가의 삶이나 하찮은 물건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기획은 개입한다.

2) 문화기획자로서 작은도서관 활동가

다양한 문화 활동이 수없이 벌어지고 이용자와 사서 및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작은도서관은 하나의 플랫폼이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용자와 관계 맺기를 용이하게 하고 책과 삶이 만나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작가와의 만남을 기획하기도 하고, 원화 전시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 콘텐츠를 기획한다. 그래서 이들이 기획하는 콘텐츠는 관계 맞춤형이고 변주에 능하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맺어온 관계와 그것을 지탱하는 ‘가치’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낀다. 그리고 매개가 되는 ‘책’은 이들에게 강력한 무기로 작동하고, 어느새 이들 자신이 책과 같은 매개가 된다. 이들의 오랜 ‘경험’은 아이디어 생산과 기획적 안목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한다.

이들의 활동은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삶의 재창조’라는 문화기획의 본질에 가 닿는다. 이들은 ‘문화를 통한 도서관 재생’이라고 할 만한 변화의 씨앗이다.

기획은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일이다. 개인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시대는 지났다. 개인화된 문화기획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기획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협업은 작은도서관의 존재 방식처럼 단순히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기획의 방식이다.

2.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사례

1) 일상성

‘일상적인 지역 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일상성’이다. 현대사회에서 ‘일상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일상’의 사전적 개념은 ‘날마다’, ‘다른 날들과 다른없는 보통의 날’, ‘늘 되풀이되는 날들’이다. 한스 페터 투른(HP.Thurn)은 일상을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부터 유래했다고 보았다. 이 말은 ‘매일’과 ‘반복’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일상에서의 특징을 ‘일상성(ordinariness)’이라 부르는데 그런 ‘일상성’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특성을 일컫는다.

‘일상성’ 개념은 7, 80년대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일상성’을 학문적 개념어로 쓴 사람은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이다. 하이데거(1926)는 일상성을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일상성’을 인간이 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스스로를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자기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야한다는 말로 ‘일상성’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했다.

하이데거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르페브르(Henri Lefevre)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현대인을 ‘호모 코티디아누스’(Homo Quotidianus, 일상인)로 명명한다. 르페브르(1968)는 일상생활과 전체 사회 간 관계를 통해 인간 삶의 주요 영역인 ‘일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저항적인 대항, 대안 공간’을 생산하여 사회적 실천 요소들과 계기들을 결집하고자 했다.²⁵⁾

르페브르가 일상을 인간 소외를 중심으로 한 ‘저항의 공간’으로 풀어낸 것에 비해, 마페졸리(Michel Maffesoli)는 일상의 긍정을 이야기 한다. 그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현명한 인간)이기도 하고 ‘호모 데멘스(Homo Demens, 광기의 인간)’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했다.

25) 강수택, 1998.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 현대사회학의 이해》 민음사, pp. 49.

마페졸리(1985)는 일상을 감성과 창조의 공간으로 해석했다. 그는 일상은 다채롭고 추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으로 사회의 모든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 법칙을 추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러한 보편 법칙을 통해 모든 사회적인 것들이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 ‘환원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용호(2015) 역시 인간의 창발성 원리에 따른 사회 문화적 혁신 가능성을 일상생활권의 부상에 두었다. “창발 세대로부터 촉발된 사회의 복잡성 증가, 개인과 사회 각 부문의 자발성 증대, 그리고 이들 변화가 결합되어 일상 생활권이 부상되었다.”고 말하면서 “일상 생활권은 자발성을 높여가는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계 마당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적 삶 자체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발해 낼 무대이자 동력이 되었다.”라고 일상에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일상성 개념들은 현대사회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특히, 마페졸리와 김용호는 인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혁신 가능성을 이 ‘일상성’에 두었다. 이러한 일상성 개념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용어이다. 작은도서관의 일상성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1) 일상성에 기초한 주체의 변화-고양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²⁶⁾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에 위치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은 2005년도에 개관했으며,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이자 운영 취지는 좋은 책을, 어떠한 차별 없이 누구라도, 억지로 오는 공간이 아니라 신나서 오는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운영 취지에서 주목해볼 것은 ‘다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26) 고양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은 2019년 현재, ‘도서관을 품은 복합문화공간 상상공간 별-짓-으로 변신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 운영 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사립작은도서관이 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메이커관련 서적과 도구를 구비하고 ‘메이커스페이스’로 실험과 그림책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수서하고 그림책에 관련된 다양한 장서개발과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활동했던 책읽어주기 활동과 독서동아리 등은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활동가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일산지회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비영리민간단체 ‘책과 도서관’이 위탁 운영하는 책놀이터 인근 마상공원 작은도서관으로 옮겨가 사립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기술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활동은 지금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본 글의 의미와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포함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아울러,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에 대해 기술한 글은 본 필자의 논문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 가능성 연구(2017)에도 실려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원래, 책놀이터는 민간작은도서관으로 법적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하지만,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책놀이터를 ‘모두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간작은도서관의 자유로움을 잘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의미를 살려 운영하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주체로 세우는 것에 주력해온 결과이다.

작은도서관이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서 가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한가지 사례는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으로 ‘책읽어주기’ 중심의 일상적 활동을 통한 사람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① 일상으로서 책 읽어주기

지금은 보편적으로 공공도서관 안에서 책읽어주기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이 설립된 2005년도에는 그런 활동이 가끔 진행되는 이벤트로만 존재했다. 생활밀착도가 큰 작은도서관 특성상 자주 오는 이용자가 많은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책읽어주기를 통해서 도서관 활동가와 이용자간 거리를 좁혀나갔다.

“책놀이터는 전국에서 책읽어주기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도서관일 거예요. 누군가 ‘책을 읽어 달라.’고 하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책을 읽어준다는 원칙은 별 것 아니지만, 지키지 어려운 거였어요. 일상적 책읽어주기는 10년 넘긴 지금까지 책놀이터가 일상을 잘 챙기고 가는 도서관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²⁷⁾

이렇게 진행한 책읽어주기는 어느 순간 책놀이터 일상적인 문화가 되었다. 도서관 활동가가 어린 이용자들을 상대로 읽어주는 형태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읽어주는 문화가 생겨났고, 책읽어주기는 놀이가 되고 일상이 되었다.

“하루는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떠들어서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혼을 냈는데, 아이들이 ‘야, 선생님 화났다. 우리 이제 책읽어주기 놀이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책읽어주기가 프로그램이나 어른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가 된 거죠.”²⁸⁾

27) S씨,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최초 상근 활동가 인터뷰, 2017. 5. 23. 7:00-8:00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28) S씨,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최초 상근 활동가 인터뷰, 2017. 5. 23. 7:00-8:00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책읽어주기가 놀이가 되고 일상이 되면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에는 ‘책읽어주는 의자’가 등장했다. 2010년도 처음 놓이게 된 ‘책읽어주는 의자’는 등받이가 조금 높게 제작된 의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책읽어주는 의자’로 명명되어 도서관 한복판에 놓이고 ‘이 의자에 앉으면 누구나 책을 읽어줘야 한다’는 암묵적 원칙이 생기면서 책읽어주기 일상성은 더 확장되었다.



[그림 8]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책읽어주는 의자’
자료 :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제공 (2015)

“아이들이 ‘책읽어주는 의자’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들도 책읽어주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걸. 가끔 오는 엄마나 아빠들이 모르고 그 의자에 우연히 앉게 되면 꼼짝없이 책을 읽어줘야 했어요. 아이들에게 각인된 원칙은 모두에게 즐거운 결과를 낳았어요.”²⁹⁾

29) K씨, 책놀이터 도서관 부관장 인터뷰, 2017. 5. 23. 7:00-8:00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책읽어주는 의자가 등장하면서 비정기적인 자원활동가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시간이 없어서 규칙적으로 도서관에 와서 자원활동은 할 수 없지만, 올 때마다 책읽어주는 의자에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책읽어주기는 도서관 안에서뿐만 아니라, 도서관 밖으로 확대되었다.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읽어주자는 제안을 했을 때 자원활동가들은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그런 자원활동가들을 설득해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동네 놀이터로 책을 가지고 가서 책읽어주기를 진행했다. 일명 ‘놀이터도서관’은 2007년도에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 관장과 자원활동가가 짝을 지어 진행하던 ‘놀이터도서관’은 1년 뒤 자원활동가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자원활동가들 중심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자원활동가들이 둘씩 진행하던 활동은 이듬해 다시 청소년 자원활동가와 성인 자원활동가가 조를 이루어 진행하는 활동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그렇게 ‘놀이터 도서관’이 6년째 운영되고 나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은 읽어주는 대상을 ‘어린이’가 아닌 ‘어르신’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어르신에 대한 공부도 진행하고 그림책 읽어주기에 대한 세미나도 열었다. 자원활동가들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놀이터도서관’에서 일상적인 책읽어주기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 활동의 주체가 되었고, 새로운 형태와 내용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된 책읽어주기는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고, 아가에게, 어린이에게, 어르신에게로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청소년이 아가들에게, 성인이 성인에게 책읽어주기로 주체와 대상도 다양화 되었다.

책읽어주기를 중심으로 다른 작은도서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자원활동가도 생겨났다. 그 자원활동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상근활동가가 되었고, 사서 자격 관련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획득한 뒤 2016년도부터는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부관장이 되었다.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에서 일상으로 진행되었던 책읽어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그것을 ‘일상문화’로 만들어 낸데 큰 의미가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꾸준히 하는 활동은 문화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일상적인 지역문화 공간으로 가지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림 9]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이 진행하는 ‘놀이터도서관’

자료 :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제공, 2015.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며 가장 놀랐던 것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사람들이 모여 해내는 것이었어요. 도서관 운영을 관장과 사서가 이끌어가지 않더라구요. 동아리나 책모임은 스스로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스스로를 챙기고, 청소년 모임도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언을 주는 방식이더라구요. 그게 책놀이터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도서관에서 각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구요.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엄마들도, 아빠들도 도서관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찾아가게 되는 순간. 모두의 도서관이 되는 거죠.”
30)

② 주체의 성장이 만들어 낸 스스로 문화

책읽어주기가 일상적인 도서관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는 도서관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주고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도록

30) J씨, 2014년·2015년 책놀이터 상근사서 인터뷰, 2017. 5. 23. 7:00-8:00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하는 분위기도 한 몫 한다.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은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엇이든 알아서 해야 한다. 잘 다듬어진 재료로 만들기만 하는 여태 다른 기관 활동과 달리 책을 읽고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재료를 다듬고, 썰고 다 만든 뒤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모두가 함께하는 과정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역할을 찾아간다. 어른들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의 목표이기도 하다.

청소년 책동아리도 어른들 도움 없이 자신들이 책을 고르고 발제하고 토론한다. 1년에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기획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차편을 알아보고 숙박을 예약하는 것까지 모두 청소년들 스스로 진행하는 ‘독립여행’도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엄마들로 구성된 자원활동가들도 아빠들로 구성된 아빠모임도 각각 자기 고유 영역을 갖고 스스로 역할을 찾고 활동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에는 1회성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평생학습강좌도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활동들이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일상’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 작은도서관이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가지는 가능성은 결국 ‘사람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일회성 이벤트 형식 문화프로그램도, 평생학습강좌도 사람의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변화는 일상을 거쳐 ‘사람의 변화’라는 결과로 만들어진다.

작은도서관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상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지역성

작은도서관의 지역성은 우선 가장 쉽게 ‘가깝다’는 점과 직결된다. 작은도서관은 일상생활권 안에 있는 지역문화공간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생활 반경 안에 존재한다. ‘가기 쉬운 곳’이라는 의미는 ‘자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되풀이된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작은도서관을 방문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특징은 작은도서관이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잘 활용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갖게 한다.

거리가 가깝다는 것 외에도 심리적으로도 작은도서관은 ‘가기 쉬운 곳’이다. 조용히 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의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은 심리적으로 가기 쉬운 곳을 넘어 ‘가고 싶은 곳’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책’이라는 좋은 매개물이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책을 읽진 읽지 않건 ‘책이 있는 곳’은 ‘좋은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이 ‘크게 마음먹지 않고 가도 되는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도시 안에서도 대도시인지 소규모 도시인지에 따라 다른 지역적 특색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인지 다른 지역인지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의 지역성은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도 연결된다. 작은도서관은 일상의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1) 지역문화 중심의 활동 – 제주도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주에 있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10월에 문을 열었다. 미래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어린이 책과 문화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이끌어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꾸준히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간작은도서관이다.

2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읽는 기본적인 도서관 역할은 물론,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지역문화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제주도 곳곳을 돌며 노는 ‘악당개미’ 활동과 제주어로 된 어르신 그림책을 만드는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사례이다.

① 놀멍 쉬멍 ‘악당개미’

“‘악당개미’ 활동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노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어요. 설문대 2대 관장인 임기수 관장님이 봉고차에 아이들 10명을 태우고 제주도 이곳저곳을 돌며 노는 활동이었거든요.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놀고, 산에서 뛰어다니며 놀면서 제주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죠. 특별히 목표가 있거나 제주를 알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제주를 알게 되더라구요.”³⁾

악당개미는 아이들에게 ‘제주’를 인식하게 하는 활동이면서 ‘시각화’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악

당개미 활동에 함께 한 아이들은 제주 이곳저곳에서 놀며 제주가 어떤 곳인지 자연스럽게 알아갔고, 이미지로 제주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탐방이나 답사가 아닌 ‘노는 곳’으로 떠난 제주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그렇게 동네에서 노는 활동은 ‘제주’라는 지역을 자기 고향으로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제주도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른 곳 아이들과 다르게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컴퓨터 게임하고 학원 다니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제주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놀다보니 자기 사는 지역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것을 계획하지 않고 놀자고 시작했던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논다는 건 일상이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놀다보니 거기가 내 고향이고 내 삶터였던 거죠. 악당개미 활동을 했던 아이들은 자라서도 제주도를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내가 살았던 곳, 놀았던 곳으로요. 제주 어디를 가면, ‘나 여기서 뭐 하고 놀았는데.’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진짜 고향인 거죠.”³²⁾



[그림 10]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악당개미’ 활동
자료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공, 2009.

31) K씨, 현재 설문대 관장 2019. 10. 25. 9:00-11:00 전화인터뷰
32) K씨, 현재 설문대 관장 2019. 10. 25. 9:00-11:00 전화인터뷰

그렇게 시작한 악당개미 활동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악당개미를 시작으로 제주를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탐험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활동가들은 제주를 탐험하고 제주에서 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공간의 의미를 넘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이기도 하다.

“작은도서관은 문화예술의 시발점이라 생각해요. 뭔가 준비하고 계획서 진행하는 것 말고 일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도서관 앞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잘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본 우리들이 ‘저길 무대로 써 볼까?’ 하고 생각했죠.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해 옮겼고요. 그 정자는 이제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무대가 된 거예요.”³³⁾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찾기’와 ‘발견하기’의 연속이다. 잘 짜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제주’라는 지역에서 일상을 살면서 제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② 제주어를 기록하다-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활동은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이다.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는 제주어르신들이 자기 삶을 그림책으로 만드는 활동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책 모두가 제주어로 쓰였다는 것이다.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가 시작된 2015년은 제주 검은오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고 동백동산이 랍사르 습지로 등록되는 것을 계기로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무렵이었다. 제주어를 기록하고 싶은 선홍지역 마을활동가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이 활동은 사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활동가들이 몸 담고 있는 제주그림책연구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자신들 목소리가 그대로 그림책으로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33) K씨, 현재 설문대 관장 2019. 10. 25. 9:00-11:00 전화인터뷰

제주문화를 담는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인생을 담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였죠. 제주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숨겨온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주어르신들이 자기 말로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은 자기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어요.”³⁴⁾

이렇게 시작된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는 2016년에는 지역특성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중요한 활동이 된 것이다.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평생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았거든요. 무조건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제주어를 기록하고 제주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했지요.”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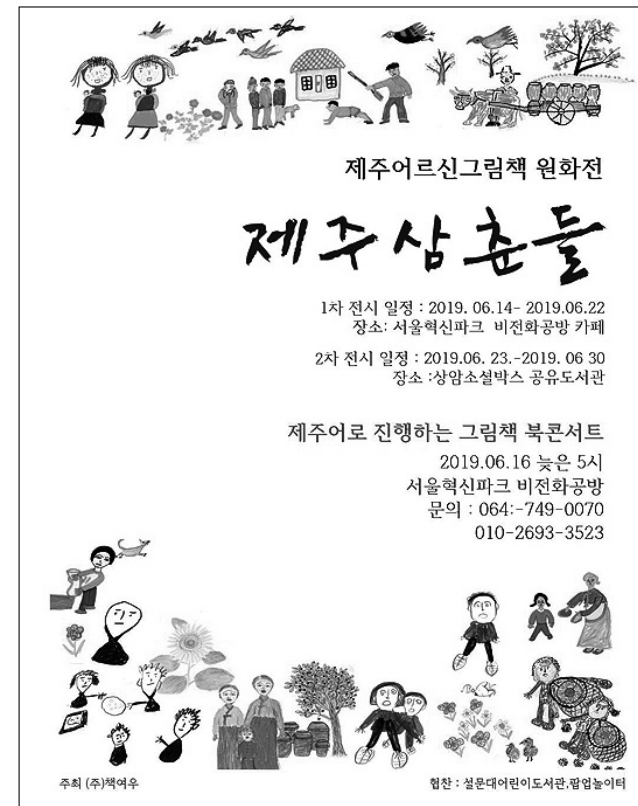


[그림 11]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 활동
자료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공. 2015.

34) K씨, 현재 설문대 관장 2019. 10. 25. 9:00-11:00 전화인터뷰
35) K씨, 현재 설문대 관장 2019. 10. 25. 9:00-11:00 전화인터뷰

2019년에는 그렇게 꾸준히 진행해오던 제주어르신그림책학교를 애월 상가리에서 진행하게 된다. 도서관 밖으로 나가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예술가가 아닌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활동가들이 독립적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는 과정은 단순히 도서관만의 활동은 아니었어요. 제주그림책연구회가 함께했고 제라진 시민 미술관이 함께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지역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의 변화였지요. 도서관에 다녀간 사람들이 화가가 되고 그림책작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읽고 사람을 읽는 곳이었던 거죠.”³⁶⁾



[그림 12] 서울에서 진행된 제주어르신그림책 원화전
자료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공. 2019.

36) K씨, 현재 설문대 관장 2019. 10. 25. 9:00-11:00 전화인터뷰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지역문화공간의 역할로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양한 활동들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이 같은 사례가 ‘제주’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지역의 다양한 문화공간이 이런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일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꾸준히 그림책을 읽고 만들어온 공력과 제주어를 기록하고 남기겠다는 의지, 그것이 지역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반문해보게 된다.

3) 공동체성

작은도서관이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가지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점이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을 거점으로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의 접근성은 ‘일상성’ 의미에도 포함되지만, ‘지역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일상성에 바탕을 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는 단순히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해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마페졸리는 현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근접해 있는 것, 자연환경, 조상의 무덤, 학교, 고향, 단골집, 오부제 등이 영토화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무언가 어딘가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를 만드는 장소”라는 표현을 통해 마페졸리는 “공간 — 집, 영토 — 로컬을 매개로 엮여지는 인간들의 삶에서 핵심은 결국 ‘관계’임”을 강조한다. 또한 에드워드 렐프(E. Relph)(1976)는 “진정한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로컬, 즉 지역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1) 마을공동체성을 기반으로 - 대구시 비산동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10년 전 비교적 대구에서 환경이 열악한 동네에서 만들어진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마을공동체 좋은이웃’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다.

“10년 전 비산동은 마을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이고 상

업적인 카페도 없었거든요. ‘모이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 형태는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한 거죠.”³⁷⁾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동네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책임은 모임이 주축이 되어 각종 강좌나 행사를 통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 행사나 강좌를 통해 도서관을 만든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그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도서관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햇빛따라는 자연스럽게 마을로 녹아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동아리가 있으면 어떤 동아리라도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풍물동아리도 있고,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동아리도 있고, 급식봉사를 하는 동아리도 있었어요.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마을에서 활동하던 동아리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³⁸⁾

꼭 책과 연결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마을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게 햇빛따라 사람들 생각이었다. 물론,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동아리들도 생겨났다. 어린이와 성인 독서모임은 물론이고 그림책 낭독 모임, 이야기 극장, 경로당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며 책을 읽어주는 바깥책읽어주기 모임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작은도서관 역할에 대해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도서관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죠. 그런데 책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이웃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공간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신기하게 늘 절반씩 나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다 하자 생각했어요. 어떤 이유이긴 우리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고 여겼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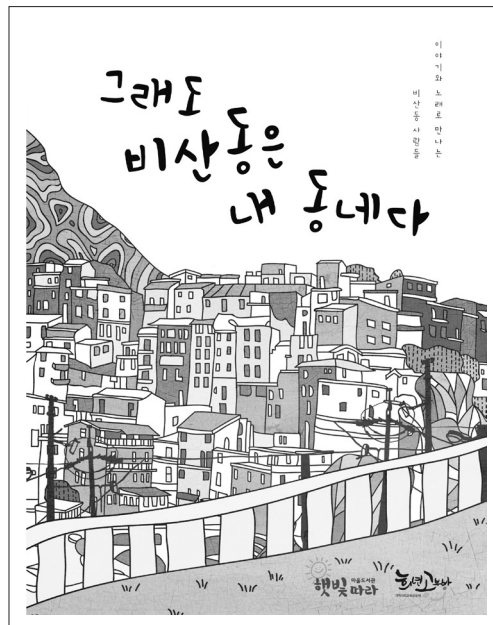
덕분에 햇빛따라 활동가들은 늘 바쁘다.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있고, 후원회원들도 있으니 회원

37) E씨, 현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관장 2019. 10. 26. 12:00-13:00 전화인터뷰35) K씨, 현재 설문대 관장 2019. 10. 25. 9:00-11:00 전화인터뷰

38) E씨, 현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관장 2019. 10. 26. 12:00-13:00 전화인터뷰

관리도 해야 하고 도서관의 역할 마을공간으로 역할도 해야 한다. 신년회, 송년회, 체육대회, 회원 모임, 회원들 배우자 모임 등등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다. 그래도 그것이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모임만한 곳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 어린이도, 청소년도, 어른들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을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이야기 수집가들을 모집했죠. 그 사람들에게 기록하는 법, 인터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터뷰어이자 기록자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죠. 사진 찍는 법도 가르치서 우리 동네 사진전도 열었어요.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마을 활동이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좀 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비산동에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을이 기록되고 책으로 나오고 사진전도 하면서 뭔가 우리 마을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된 거죠.” 39)



[그림 13]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마을이야기 책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
자료 :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제공, 2016.

마을이야기 책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에는 오스카극장, 미나리짱 등 비산동의 과거 자취와 면방직기술자 할머니를 비롯한 비산동 사람들의 삶을 인터뷰형식으로 담은 책이다. 책을 만드는 과정은 또 다른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마을이야기수집가들이 도서관으로 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나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과 도서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산동이 다른 동네와 좀 다른 점은 일가친척이 한 동네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댁과 친정이 같이 비산동에 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리다보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세대들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른들이 모일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30대에서 50대가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모이게 되더라고요.” 40)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올해 10주년 맞아 마을잔치를 벌였다. 도서관 10주년 잔치이기도 했지만 마을잔치이기도 했다. 도서관이 마을과 함께 성장해온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하는 잔치와 다르게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준비하고 치르는 잔치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림 14]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10주년 기념 마을잔치 홍보물
자료 :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제공, 2019

39) E씨, 현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관장 2019. 10. 26. 12:00-13:00 전화인터뷰

40) E씨, 현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관장 2019. 10. 26. 12:00-13:00 전화인터뷰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 맞아요. 책을 읽고 나누는 기존 도서관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 도서관의 정체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각 도서관마다 특색이 다 있는 거죠.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생길 때도 각자 다른 몫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읽는 이용자들은 좀 줄겠지만, 그것 말고도 마을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많은 게 우리 도서관이거든요.”

작은도서관은 각각 저마다 다른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갖는다. 그 이유가 다 같을 수도 없고 다 같을 필요도 없다. 햇빛따라가 지향하는 작은도서관의 마을공동체성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그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V. 결론

“‘작은도서관 운동’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자조운동인만큼 ‘크다’ ‘작다’라는 규모나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8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의 한 부분이다.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하는 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일제시대 황국신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기관으로 이용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이 경직된 분위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변화된 지역 시민 문화와 독서생태계에 맞는 환경을 갖춰줄 것을 꾸준히 문제제기 했으며, 이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동도 활발히 펼쳐졌다. 70년대는 엄대섭 선생님이 농촌계몽 운동으로 시작한 마을문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단초가 되었으나 이후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관변화 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 노동서원과 난곡주민독서실 등 새로운 민간작은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며, 지역에서는 민간 작은어린이도서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간 작은어린이도서관의 등장과 확산은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초반 기적의 도서관 운동의 견인차가 되었고, 기적의 도서관

운동을 계기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만들어 냈다.

정부도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 만들어져 작은도서관을 민간에서 시작된 자발적 문화공간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정책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고, 지역마다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생기는 등 여러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진행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은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고민을 확산시켰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작은도서관이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되고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물론, 작은도서관은 법으로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발행되는 도서관 연감에도 전국 도서관 수에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따로 분류해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법률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작은도서관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작은도서관의 역사적 가치를 민간의 자발성으로 두고,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의미를 일상성과 지역성, 공동체성으로 정리해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주는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공간으로 보자는 뜻이다. 정책적 용어로만 설명하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자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일상성’은 현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혁신 가능성이다. 더불어 작은도서관은 물리적 심리적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의 문화를 기록하고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지역성’에 기초한 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온 책읽어주는 주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다시 시민 스스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제주를 돌며 노는 문화로 제주를 기억하고, 제주어로 기록된 어르신 그림책을 만드는 제주의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활성화 시키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비산동에 위치한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작은도서관이 책문화공간일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다양한 동

아리가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마을의 기록자로 성장시키고 그러한 기록을 담아내는 활동을 통해 그 마을에서 사는 의미를 새로 부여했다. 마을에서 태어난 작은도서관이 다시 마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변화와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함께 요구된다. 작은도서관을 용어적 프레임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상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고민하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변화는 정책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상 속에서 지역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낼 때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힘이 될 것이다.

결국, 작은도서관을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보는 것은 그간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온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인정하는 과정이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률적인 범주로만 작은도서관을 설명하기엔 그간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온 역사적 가치가 너무 크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지 못한 고유한 문화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독서문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해온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해 온 것은 지역문화 공간 사례로 보아도 공동체 공간 사례로 보아도 큰 가치를 가진다 하겠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민간이 주도해 온 민간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확산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공립작은도서관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다 담지 못한 것은 이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고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가치를 해석하는 일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 강수택(1998),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 현대사회학의 이해, 민음사
- 곽동철(2016),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1호
- 김소희(2008), 작은도서관운동의 마을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외(2013),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청어람미디어
- 김용호(2015), 창조와 창발, 수류산방
- 김자영외(2017),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 남영준(2006),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 미셸 마페졸리, 앙리 르페브르(2016),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 박미숙(2017), 일상성에 기초한 지역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 가능성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희(2019),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저널
- 에드워드 렐프(E. Relph)(1976),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이용남(2013), 도서관 운동가 엄대섭 평전 '이런 사람 있었네', 한국도서관협회
- 이용남(2016), 작은도서관 전개과정과 의미 그리고 방향성, 전국작은도서관대회, 2016.4
- 이용재외(2007),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이진우(2006),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작은도서관운영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08